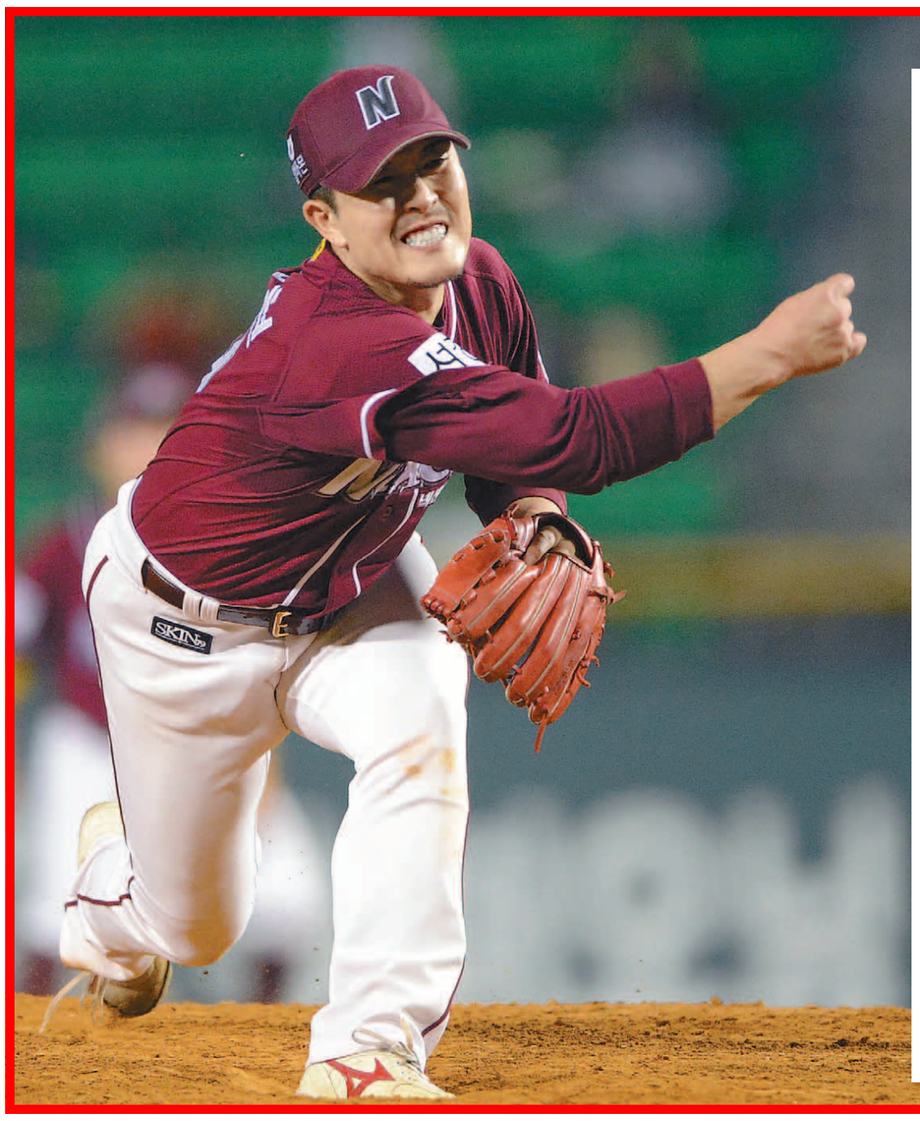


“악! 좌파 때문에”…핵잠 침몰

섬싱 스페셜

김병현, LG 좌타자 7명에 3실점 와르르
좋은 흐름 잇지 못해…볼넷 5개 숙제로
김성갑 “내년 선발 축…기회 한번 더!”

넥센 김성갑 감독대행은 27일 잠실 LG전을 앞두고 선발 등판 예정인 김병현에 대해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병현은 50일 만의 선발 복귀전이었던 20일 목동 롯데전에서 6이닝 1실점으로 시즌 3승에 성공했다. 김 대행은 “지난 번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면 무엇보다 큰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야 내년에 좀 더 좋아지고, 팀도 살게 된다”고 말했다.

●김병현이 잘 해야 하는 이유

김성갑 감독대행은 “김병현은 내년 시즌 팀의 선발 한 축을 담당해줘야 한다. 그래야 불펜도 좋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현이 불박이 선발로 활약할 수 있다면, 올 시즌 선발로 뛰었던 강윤구 장효훈 김영민 중 한명을 불펜으로 돌릴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팀 마운드의 균형이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대행은 “그동안 김병현은 힘으로만 던지려고 했다. 그러다보니 밸런스가 좋지 않았고, 투구수가 많아졌다. 야수들의 에러도 수비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진 탓”이라며 “롯데전에선 무4사구였다. 그런 피칭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LG 좌타자를 넘어라!

김성갑 감독대행은 LG의 선발 라인업을 받아들더니 “역시 7명이나 된다”고 밀했다. LG는 김병현을 공략하기 위해 이날 좌타자 7명을 포진시켰다. 김병현은 직전 등판까지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0.284)이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0.259)보다 좋지 않았다. 피홈런 5개 중에서 좌타자에게 4개를 맞았다. 김 대행은 “LG전에서 무너진다면, 다른 팀도 김병현에게 무조건 좌타자를 내보낼 것”이라며 “오늘 결과가 중요한 것도 그래서다”고 설명했다.

●결과는?

김병현은 이날 LG전에서 6이닝 4안타 5볼넷 3실점하며 패전 멍에를 썼다. 겉으로 드러난 성적은 낙제점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기대치를 고려한다면 합격점을 줄 정도는 못 된다. 5회 이진영, 6회 이대형 등 모두 좌타자에게 적시타를 허용했고, 4안타 모두 좌타자에게 맞았다. 무엇보다 볼넷 5개가 아쉬웠다. 최고 구속도 롯데전보다 4km 떨어진 143km였다. 올 시즌 처음 세 자릿수(109개) 볼을 던졌지만 롯데전에서 같은 이닝 동안 87구를 기록한 사실과 비교하면 효율적 투구를 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LG전은 희망보다는 숙제를 더 안겨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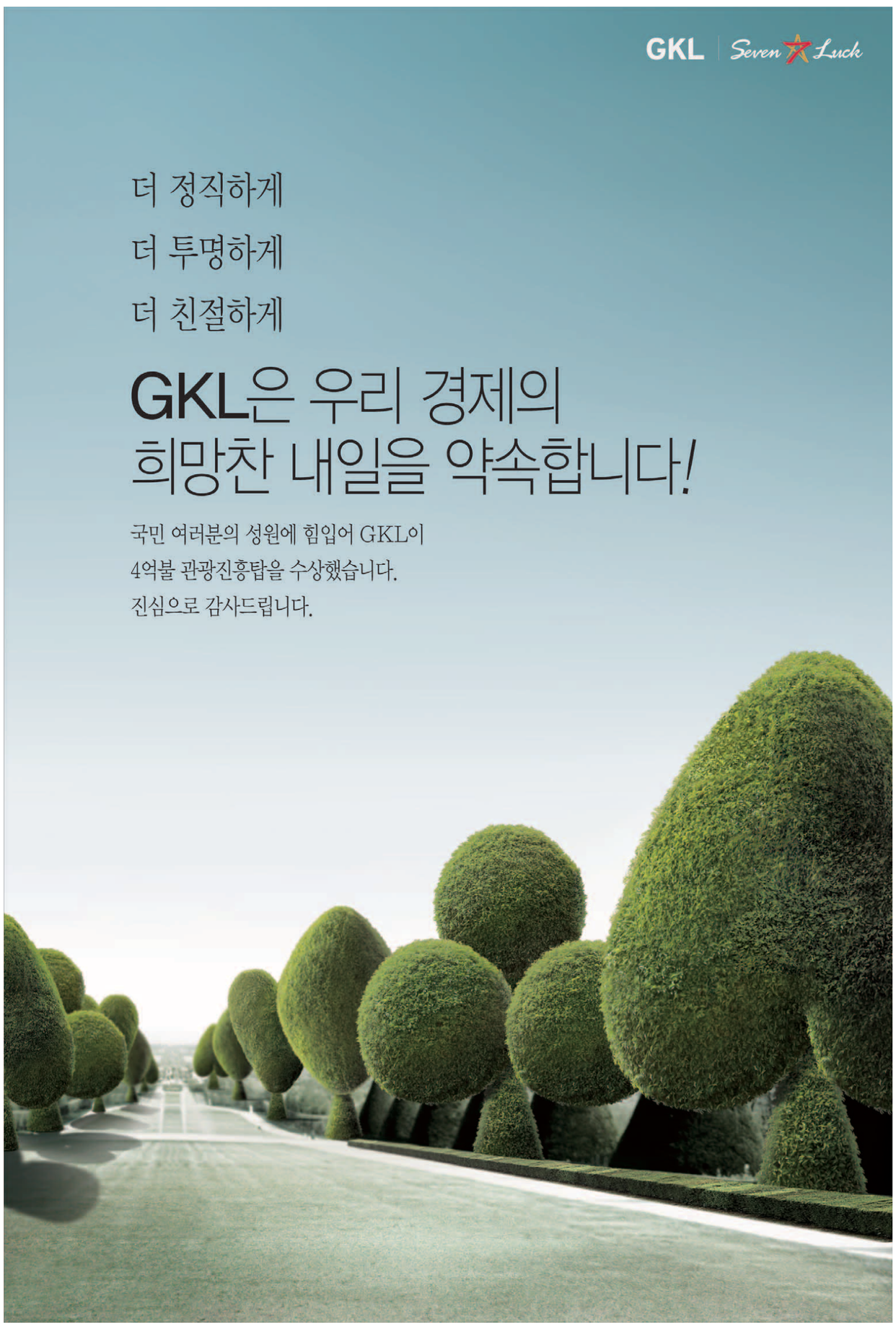
경기 후 김병현은 “밸런스도 그렇고 모든 게 만족스럽지 않은 경기였다”고 자평했고, 김 대행은 “김병현이 투수일 때 어떤 주자든 나가면 도루를 한다. 이런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병현은 올 시즌 한 차례 더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잠실 |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넥센 김병현이 27일 잠실 LG전에 선발 등판해 혼신을 다해 투구하고 있다.

잠실 |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편집 | 강문규 기자 mkkang@donga.com 트위터@ mkkkang





가을만 되면 SK는 이렇게 강해진다. SK는 27일 문학 한화전에 승리해 플레이오프 직행에 한발 더 다가섰다. 승리가 확정되자 SK 선수들이 마운드에 모여 함께 기뻐하고 있다.

문학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rine007

삼성 우승-SK PO직행 ‘매직넘버 4’

2012 paldo 팔도프로야구 경기종합(27일)

SK가 ‘지옥의 8연전’에서 3연승의 반전을 써내려가며 2위 굳히기에 돌입했다. SK는 27일 꼴찌 한화를 잡고 페넌트레이스 2위 매직넘버를 4로 줄였다. 선두 삼성도 롯데를 꺾고 한국시리즈 직행 매직넘버를 4로 줄였다. 롯데는 4위로 떨어졌다.

●SK 4-1 한화(문학·승 채병용·세 정우람·패 윤근영)

SK는 1회 정근우~임훈~최정의 연속안타와 박정권의 2타점 2루타로 3점을 한꺼번에 뽑아 기선을 제압했다. 선발 채병용이 6이닝 1실점으로 시즌 3승째(3패)를 올렸고, 마무리 정우람이 29세이브에 성공했다. SK 박희수는 33번째 홀드로 2006년 삼성 권오준(32홀드)을 넘어 한 시즌 최다 홀드 기록을 세웠다.

●LG 3-0 넥센(잠실·승 임찬규·세 봉중근·패 김병현)

5회 이진영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린 LG는 6회 이대형의 2타점 적시타로 추가점을 뽑았다. 넥센 선발 김병현은 6이닝 3실점으로 7패(3승)를 기록했고, LG 선발 임찬규는 5.2이닝 무실점으로 올 시즌 17경기 만에 첫 승(4패)을 신고했다. 개인 7연패를 마감하며 8번째 도전에서 데뷔 첫 선발승을 얻어냈다.

●삼성 6-2 롯데(사직·승 윤성환·패 사도스키)

삼성은 1회 이승엽의 적시타로 리드를 잡은 뒤 3-2로 앞선 6회 상대 실책과 폭투를 등에 업고 3점을 추가해 승부를 갈랐다. 삼성 선발 윤성환은 5이닝 2실점으로 8승째(6패)를 건졌다. 롯데 선발 사도스키는 4회 이지영의 타구에 오른 손목을 맞았지만 검진 결과 단순 타박상으로 밝혀졌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matsri21

통산 364도루…대도 이대형, 발과 함께 살아나다



27일 잠실 넥센전을 앞둔 LG의 훈련시간. 덕아웃에 앉아 취재진과 얘기를 나누던 LG 김기태 감독은 타격훈련 중이던 이대형(사진)을 바라보며 “살아났네”라고 말했다. “표정이나 훈련에 임하는 태도 등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며 “내년엔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돌이켜보면 이대형에게는 참으로 힘든 한 시즌이었다. 오프시즌 동안 어느 해보다 열심히 훈련했건만, 시즌 초반부터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자책도 많이 했다. 여전히 그의 시즌 타율은 2할에도 훨씬 못 미친다. 그러나 9월 들어 전날까지 무려(?) 타율 0.207을 기록했고, 무엇보다 타구의 질이 좋아지며 뒤늦게 발동이 걸린 분위기다. 내년 시즌 그가 다시 팀의 1번타자를 맡아주길 기대하고 있는 김 감독에게 그나마 희망을 주고 있다.

훈련을 마친 이대형은 환한 미소와 함께 “살아났다. 내년에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동안 의기소침하며 “언젠가 좋은 날이 오지 않겠느냐”고 힘 없이 얘기하던 과거 모습과는 영 딴판이었다. 그런 자신감 덕분이었을까. 이대형은 이날 넥센전 2회 첫 타석에서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2루까지 훔치며 자신의 장기인 빠른 발의 위력도 과시했다. 개인통산 364도루(현역 1위·역대 5위)로 LG 구단 사상 최다 도루란 의미 있는 기록도 세우면서….

잠실 |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